

남원 세전리 유적 특별전 개최

전북대박물관, 고고문화인류학과와 내년 3월 31일까지 '靑年 고고학도가 보는 세전리 유적과 馬韓' 주제 진행

전북대학교박물관(관장 홍찬석)은 대학특성 화사업 일환으로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학과장 이형우)와 함께 세전리 유적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靑年 고고학도가 보는 세전리 유적과 馬韓'이라는 주제로, 22일부터 오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전북대학교박물관 기획전실에서 열린다. 세전리 유적은 남원시 송동면에 소재하는 마한의 마을 유적으로서, 상운리 마한 특별전에 이은 두 번째 마한 시리즈다.

이에 따르면 남원 세전리 유적은 호남 동부 산악지대에서 처음으로 발굴조사된 마한의 마

을 유적이다. 1984년 11월 관계기관에 신고돼 1985년~1986년에 3차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뤄졌다. 드넓은 평지에 조성된 유적에서는 동근 형태의 집자리 26기와 마한의 유물들이 다양

으로 출토됐다. 이번 특별전은 청년 고고학도들이 주축이 돼 세전리 유적을 공개하는 자리다.

특별전은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사진첩 속 잠들어 있던 세전리'로, 발굴조사와 관계되는 손때 묻은 자료들을 만날 수 있다. 2부 '세전리, 다시 숨쉬다'에서는 세전리에서 출토된 다양한 토기들을 감상하실 수 있다. 3부 '청년 고고학도, 세전리의 실체를 파헤치다'에서는



청년 고고학도들의 포스터 발표로, 그들의 관심과 고민을 만나볼 수 있다.

전북대학교박물관 관계자는 "당시 발굴 조사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마을 분들의 기억을 수집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해 관람객들의 적극적인 호응도 기대된다"면서 "특히 또 다른 마한 전시를 박물관 3층(고대문화실)에서도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시대와 문화상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태권도진흥재단은 국기 태권도 수련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2022년도 중·고교 태권도 수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중·고교 태권도 수업 참여 학교 모집

태권도진흥재단, 전국 20개 내외 학교 선정해 자기방어·격파 등 지도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국기 태권도 수련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2022년도 중·고교 태권도 수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내년 1월 14일까지 교육부 인가를 받은 전국 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참여 희망 학교를 모집한다. 심사를 거쳐 전국 20개 내외의 학교를 선정해 학교별 최대 10학급을 대상으로 태권도 기본 기술과 자기방어, 겨루기, 격파, 품새 등을 지도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지도사범' 파견을 비롯해 '태권도복 및 교육 기자재' 등 태권도 수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태권도 수업 진행은 영상을 통한 '온라인' 교육과 학교를 찾아가서 진행하는 '대면' 교육, '온라인·대면' 병행 교육 등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다양한 운영 방식을 준비한 가운데 교육 당국과 시행 방법을 논의하면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태권도 수업 현장 평가 등을 통해 최우수 학교 1개교와 우수 학교 2개교를 연말에 선정할 계획으로 선정된 학교는 사업 기간 자동 연장 등 다음 연도 태권도 수업 참여 학교 선정에 있어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중·고등학교에서는 태권도진흥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 이메일(ssjml@tpfor.or.kr)로 접수하면 된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태권도 수련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다"며 "태권도 수업 진행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중·고교 태권도 수업 지원' 사업은 2021년에 17개교 143학급에서 총 3천2백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등 2016년 사업 시행 이후 전국 88개 학교 842학급 2만 2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태권도 수련의 기회를 제공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 한복테마정원 기획 전시

내년 1월 16일까지 예루원서 무료 진행

남원시는 2021 한복문화 지역거점 행사 일

환으로 22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예루원에서 '한복, 한지, 한옥에서 경계의 관계를 묻다'라는 주제로 한복테마정원 기획 전시



남원시는 22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예루원에서 한복테마정원 기획 전시를 개최한다.

를 개최하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10월 광한투원 일원에서 성황리에 마친 '2021 한복문화 가을주간'과 연계해 이뤄지는 마지막 행사로 아름다운 우리 옷 한복을 새로운 작품으로 알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전시작품은 소빈, 나예심, 송진아, 이재화 작가 총 4명이 참여해 한복을 다양한 주제로 표현했다.

특히 이번 전시 기획은 남원에서 나서 남원의 대표작인 한지공예가인 소빈 작가가 참여하며, 소 작가의 인형 작품은 한복이 예루원이라는 한옥에서 다양한 시공간의 경계에 상대성을 표현하는 작업특징이 대해 의미를 더한다.

이 밖에도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어여쁜 이동한복 전시공간도 마련돼 있다.

예루원 마당에는 대형트리와 겨울 야간경관이 함께 펼쳐져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감상거리도 준비되어 온 가족이 방문하면 더 좋다.

한편, 이번 전시와 함께 남원다움관(천의 기억, 짓:다2 특별전)과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신용구의 색을 품다. 있다. 꿈. 전시)에서 2021 한복문화 지역거점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행사를 만나 볼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익산시립합창단 정기공연 23일 비대면 개최

익산시가 연말을 맞아 힘들고 지친 시민들을 위해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했다.

시는 23일 제82회 익산시립합창단 정기공연 '염:rest'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정남규(원주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지휘자가 객원 지휘로 초빙됐으며, 전통

클래식인 모테트 합창을 시작으로 한국 창작 가곡·여러나라 민속음악·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다채롭게 준비됐다.

익산시민의 안전한 문화생활과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오미크론 유입 사전 차단을 위해 비대면으로 영상 촬영이 진행된다.

공연은 지역방송 송출 및 익산시립예술단 유튜브에 게시될 예정이며, 방송 일정은 금강방송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하나로 어우러지는 하모니를 만들어 내는 합창을 보며 시민들이 정서적 안정을 느끼고 마음을 치유하며 새로운 2022년도 희망차게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연문의는 익산예술의전당(063-859-3249)으로 하면 된다. /익산=이득훈 기자

부안군문화재단, 출범 CI 공개

(재)부안군문화재단(이사장 부안군수 권익현, 이하 재단)에서 재단 CI 개발 공모전 대상 수상작(수상자 이석곤)을 수정·보완한 최종 CI를 21일 공개했다.

재단은 지난 10월 출범을 알리는 동시에 비전을 상징하고, 역사문화와 관광도시 부안의 브랜드를 담아낼 수 있는 CI 개발을 위해 공모전을 진행했다.

30여 점의 출품작 중에서 심사위원이 선정한 4점의 우수작을 대상으로 부안군민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용할 CI를 결정할 바 있다.

재단에서 공개한 이번 최종 CI는 변산반도의 산과 바다, 서해안 노을과 부안 들녘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색상을 담았다. 서로 다른 물방울이 섞여 어우러진 모습은 재단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과 군민, 모여드는 세계인, 문화예술이 하나가 되어 서로의 존재적 가치를 높임을 형상화한 것이다.



아울러 한글로 구성된 로고타입은 글자 자체가 하나로 이어진 독특한 모양새다. 공모 심사 당시 심사위원회에서 "로고타입 그 자체로 하나의 심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재단 관계자는 "서로 다른 존재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예술로 하나된 부안군을 만들어 심벌마크에 담긴 의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